

새로운 천년을 밝힐 기술적 패러다임

질주하는 과학기술의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최근 발간된 관련 서적들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내비친다.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다소 우세한 것은
환경파괴 · 인간복제 문제 등이 빛은 결과로 여겨진다.

과학기술의 미래상 엿보기

세계적인 과학자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오늘, 그리고 21세기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진단한 《오디세이 3000》(게로 폰 뵘, 장혜경, 끌리오)은 독일 ZDF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글로 옮긴 것으로 생명공학 · 컴퓨터공학 · 마이크로 전자공학 · 생물학 등의 발전도를 촘촘하게 살피고 있다. 먼저 〈프랑켄슈타인의 아이들〉을 통해 유전공학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생명체의 암호 판독, 인공자궁 개발, 생명복제 등을 근거로 미래의 화약고로 등장한 인간복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슈퍼 두뇌 네트워크〉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기계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인공지능 사이버 기계를 가지고 노는 복제아들이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힌 몬스터 · 몰렉 · 매가 도시에서 사는 모습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미래의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새로운 인류문명을 창조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재앙의 질곡 속으로 몰아넣는 원인으로 꼽힌다. 정보와 과학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시작하는 《새 천년, 새 세기를 말한다-과학과 문명》(한겨레 21세기 특별기획팀, 한겨레신문사)은 21세기 과학발전과 문명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있다.

인류의 생활에 밀착된 컴퓨터의 진보는 정보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하지만 고도화된 '빅 브라더'의 탄생을 유도한다. 또 과학의 발달로 인류의 생명연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유전자 조작 등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욱 자연파괴로 인한 일상화된 기상이변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제 없는 감염물질이 창궐하는 현상을 빚을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이 구축할 새로운 문명은 국가의 붕괴, 극도로 치달리는 종교, 언어통합, 문화융합 등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이 책은 예견하고 있다.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은 생명공학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핵심은 생명공학이다. 복제인간을 꿈꾸는 과학의 종착지를 살핀 《프랑켄슈타인인가 멋진 신세계인가》(조홍섭,



한겨레신문사)는 유전자를 다루는 기술이 불과 2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복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직시하며, 앞으로 나타날 생명공학의 문제를 살피고 있다.

책은 먼저 생명의 신비를 찾아 떠난다. 지구의 주인 박테리아부터 암컷은 왜 튀는 수컷을 좋아하는가, 인체의 신비 등을 다루며 생태계의 비밀을 푼다. 인간의 오만이 빚은 생태파괴의 문제를 다루던 끝에 유전공학이 잃어버린 세계를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궁극적인 문제는 생명공학이 가져올 인간복제 문제를 다룬다. "돈 많은 사람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머리 없는 복제인간을 만들어 보관(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생명공학을 단일 주제로 삼은 《인간복제》(악셀 칸 · 파브리스 빠삐용, 전주호, 푸른미디어)는 생명복제의 시작부터 인간복제까지 다루고 있다. 생명복제의 통로인 유전학의 발전, 비생식 복제 '돌리'의 탄생까지 50년의 역사를 더듬고, 포유동물의 복제에서 복제인간 탄생의 전주곡을 듣는다.

유전자 변이 신기술은 새로운 복제방법을 가능케 만들었다. 최초의 인간 클론부터 핵이식의 실험적 한계, 인간복제를 위한 회사 설립, 야망과 윤리의 시소게임이 펼쳐지는 동안 인간복제의 길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복제 문제가 사회적 이유로 떠오르는 동안 복제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오만이 빚은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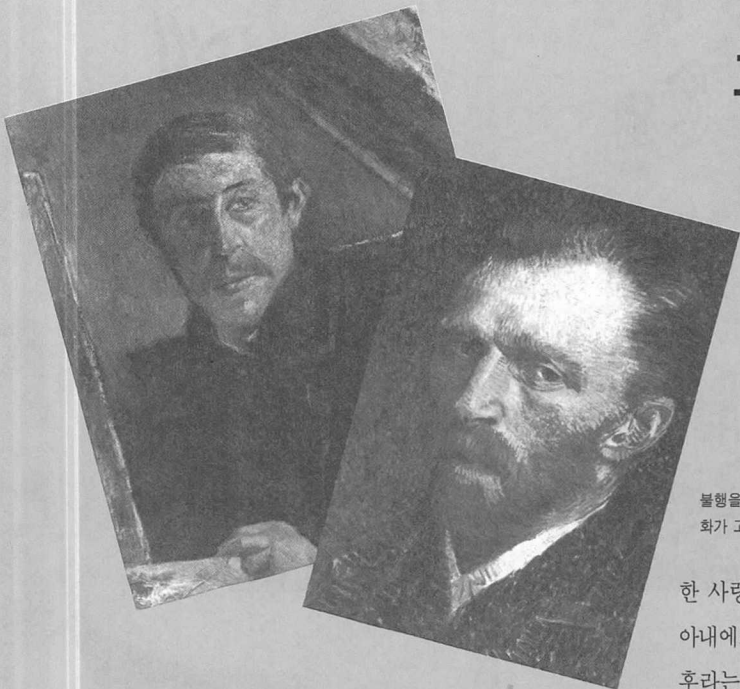
— 오원진 기자

과학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책들

제목	저자, 역자	출판사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	위비 바이커 외 송성수 편	새물결
과학사 X파일	최성우	사이언스북스
과학의 양심선언	스티븐 H. 바이얼리 이상빈	10101
로봇의 행진	캐빈 워윅 과기원 시스템제어연구실	한승
바이오테크 시대	제레미 레프킨 전영택 · 전병기	민음사
보이지 않은 것을 과학한다	사사키 시게미 박희준	물병자리
복잡성의 과학	장은성	전파과학사
비트의 도시	윌리엄 미첼 이희재	김영사
스타트랙을 넘어서	로렌스 M. 크라우스 박병철	영림카디널
제2의 창세기	이인식	김영사

고통과 기쁨이 뒤얽힌 예술가들의 삶

니체 · 고갱 · 고흐 · 괴테 · 베이유가 보내온 전언



불행을 경쟁하듯 삶의 비수를 안고 살았던 화가 고갱과 고흐의 자화상

한 사람의 내밀한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은 흥미롭다. 그 사람이 세계 역사 위에 우뚝 선 인물이라면 더욱. 위대한 정신에게도 그들이 있다니, 실패한 사랑과 집요한 우정, 인생을 뿌리째 흔든 방향이 있었다니.

때로는 허물어진 정신마저 드러내는 예술가들의 자전적 에세이나 편지, 일기 등은 우리에게 삶의 여러 빛깔을 이야기한다.

위대한 정신들은 책 속에서 불행하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프리드리히 니체는 《니체, 최후의 고백》(작가정신)에서 누이동생 ‘엘리자베트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 털어놓는다. 말년을 보낸 정신병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쓴 이 비망록에는 그의 정신이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가정사와 사랑이야기가 담겨 있다.

불행을 경쟁한 고갱과 고흐

화가 고갱과 고흐는 불행을 경쟁하기라도 하는 듯했다. 고갱은 고흐가 자신을 계기로 벌였던 ‘귀 절단 사건’의 전모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람기획)에서 밝히고, 스스로 견뎌야 했던 삶의 비수들에 대해 말한다. 고흐 역시 《반 고흐, 영혼의 편지》(예담)에서 광기에 휘둘린 연약한 영혼을 투명하게 내보인다.

“나는 진심으로 시엔을 좋아하고 그녀 역시 그렇다. ... 그녀도 나도 불행한 사람이니.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 지고 있다. 그게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아니겠니. ...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 여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비록 실패했지만 죽음을 결심하고 비소를 털어넣었던 고갱도 고흐처럼 인생을 밝혀줄 완전

한 사랑을 원했다. 코펜하겐에 있던 아내에게 버림 받고, 타히티 처녀 테후라는 집을 나가고 유일한 이해자

였던 딸 아린마저 잃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유서 대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남긴다.

실패한 사랑이 위대한 예술을 낳는 경우를 괴테에게서도 본다. 젊은 시절 4번이나 실연당한 괴테는 《괴테, 불멸의 사랑》(이상기, 푸른숲)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실제 여인 샬로테 부프와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 한다.

사소함으로 기억하는 삶의 빛과 그늘

인생에 그늘만 있겠는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고갱은 아직 인생이 빛으로 충만했던 시기의 《타히티 기행》(서해문집)을 통해 삶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 2년 동안 머문 “빛이 발원하는 신비로운 세계” 타히티를 떠나며 “나는...이십년은 젊어져서 떠난다... 나는 인간의 영혼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책을 포함한 자신의 흔적에 대해 결벽스러웠던 생 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헌정했던 친구 앞에서 허튼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의 오랜 친구 레옹 베르트는 《생 텍쥐페리에 대한 추억》(콜리오)을 통해 “상투적인 어휘들로 묘사되는 영웅 생 텍쥐페리”가 아닌 친구를 그린다.

생 텍쥐페리가 죽은 후 자신이 출판한 《성채》의 몇 가지 관념들을 통하기도 하고, 생 텍쥐페

리의 서제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문의 각주를 들여다 보며 ‘아니지. 이건 사실이 아니지’ 했던 대화의 인상, 혹은 누군가의 집에서 드골에 대해 나눴던 대화, 어머니께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통해서 친구의 진실을 보여주려 한다.

거기에서 생 텍쥐페리는 “메르모즈와 기요메의 동지이고, 캄캄한 밤 무수히 많은 별들 틈에서 자기 별 지구를 찾지 못해 하늘과 대지 사이를 헤매는 천사장”이다. 또 그가 비행을 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온함과 고독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짐과 사물을 자주 바꾼 것이 변덕에서가 아니라 시적 이미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다.

평생 민중의 친구로 살다가 서른 넷에 영양실조로 죽은 시몬느 베이유는 더 깊이 들어간다. 《불꽃의 여자 시몬느 베이유의 사색 1 중력과 은총》(사회평론)은 자신보다 신의 사랑, 인간의 불행, 시간을 제대로 쓰는 법, 포기하기, 우주의 의미 등 ‘인간’의 내면을 간결하고 정제된 언어로 성찰한다.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서 고통이 무엇을 앗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느낄 때 고통과 기쁨의 관계는 배고픔과 먹을 것의 관계와 같다. 공허한 무(無)의 고통 속에서 더욱 충만한 실재를 발견할 것. 마찬가지로 삶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죽음을 사랑할 것.” 시몬느 베이유의 말은 기쁨과 고통이 뒤얽힌 예술가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내온 전언이다.

- 이현주 기자